

너가 글이 될

사랑아



목차

김서울	친해지기 싫은 아빠친구 아구찜
김예지	스피드 추석!
박세은	사랑의 파산핑
서유빈	힘들지만 신나는 서울나들이! (성수/신당)
이서은	공포의 에어 바운스
임가윤	우왕좌왕 팝업 도전기!
임희원	엄마랑 우당탕 데이트
전예담	아찔했던 추석
전예린	힘들었던 복슬복슬 병아리 부화 일지
최지율	구경이 짱인 클라이밍
김건호	베트남 여행 일대기
노하겸	친구들이랑 크게 웃었던 일
변시현	저어새 탐구일지!
배시우	점점 털리는 할머니 카드
엄세현	트라우마 극복! 베트남
원지훈	장난치는 아이
이건욱	영종중앙감리교회 여름성경학교
이지환	으아악! 메가스톱
정윤후	놀거리가 많은 제주도
조은우	지옥의 익스트림 스포츠
진태현	가기 싫게 만드는 여주의 폭염
최인후	나의 사촌은 우주 비행사
허윤	벌레 지옥 캠핑
박시현	또 가고 싶고 그리운 미국여행 +고생길 모드 ON
장우진	엄마와의 인스파이어

친해지기

사랑



아빠 친구

아구찜



지은이: 김서울

『오늘은 아빠의 월급날이다. 나는 오랜만에 기름기 많은 허라이드 치킨이 먹고싶었다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치킨을 먹으러 가자고 하려는 순간 동생이 애교 공격을 시작했다. 나는 동생한테 방으로 드려오라고 눈빛을 보냈다. 우리 방에서 치킨vs피자를 다했다. 결국 이러나면 안될 일이 이러났다. 지금 이순간 치킨과 피자를 모두 잃었다. 아빠에 한마디에 다룬 일도 가먹을 정도로 절망했다. 그날만큼은 좋아하던 아구찜과 친해지기 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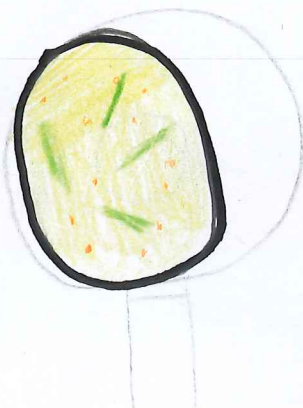
스피드 추석!

김예지

오늘은 추석이다. 신난다. 용돈이 좀. 기대가
된다. 일단 외댁 부터 갔다. 외댁에서
사촌 동생을 만났다. 앞 본사이에 귀가
했다. 점심 시간이 되서 점심 밥을 먹었다.
할머니가 만들어 준 밥은 언제나 맛있다.

그리고 놀다가 벌써 저녁이 됐다. 시간이
참 빠르다. 저녁밥 먹고 놀고 잤다.

그리고 아침이 됐다. 아침밥 먹고 지하철
을 타러 갔다. 왜냐면 오늘은 친댁에
가는 날이다. 친댁에서는 수다떨고 집으로
왔다.



사랑의 파산핑!

박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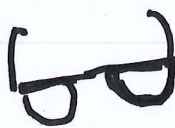
↓ 팝업스토어

나는 얼마 전에 송도에서 **사랑의 하츄핑** 팝업
스토어가 열렸길래 아주 신나는 기분으로(?) 팝업
스토어에 갔다! 팝업스토어에 가자마자 달콤한
향기가 나길래 앞을 보았더니 아주 **달콤해** 보이는
팝콘과 아이스크림이 있었다! 안에 더 봤는데,
하츄핑 원형, **조아핑** 인형, **티니핑** 옷, 대망의 **티니핑** 장난감
이 있었다! 근데 **티니핑**들이 **파산핑**인 이유
가 있다.. 왜냐하면.. **티니핑**들이 너무 귀여워서
나같은 사람들은 소장가치 **뽕뽕**이겠지만, **가** 가격이
하.나.도 안키여워서 아이들이 **티니핑**만 보면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티니핑 때문에 파산하겠다..
해서! 악명높은 **파산핑**이 된것이다..!! 얼굴은 귀
여우니 나도 좀 소장하게 가격을 줄..!! 내려가면 좋겠다!
아무튼 밖에 나오니 완전한 **하츄핑**이자 **파산핑**이 있
었다! 나중에는 **사랑의 파산핑(?)** 영화도 보러 가볼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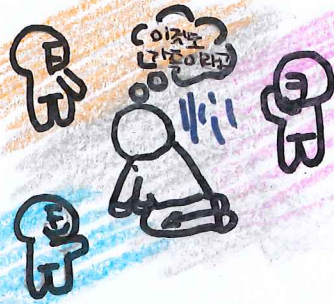
힘들지만 신나는 서울나들이! (성수/신당)

서유빈

저번주 토요일에 혼자 성수동과 신당동을 다녔다. 전날 급하게 가려고 했더라 저번 주에 다녀온 흥대보다는 즉흥적이었다. 8시쯤에 일어나서 흥대를 간다고 비슷하게 10시쯤 출발했다. 원래는 조금더 일찍 출발하려고 했지만 늦게 일어나서 원래가려고 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다. 먼저 성수동으로 갔다. 늘그랑썬 공영차를 타고 2호선으로 갈아탔다. 성수에서 먼저 간 곳은 서울가면 늘찍는 인생네컷을 찍으러 갔다. 찍어보고 싶었던 항공샷을 찍었다. 성수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없어서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갔다. 가는 길에 근처 빵집에서 조금 빵을 사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으로 갔다. 신당에 가서는 점심 먹을 거 먹으러 갔다. 두타통에 가서 먹고 싶었던 파스타를 먹었다. 두타통을 구경하다가 근처에 있던 NY NY로 갔다. 이곳은 마세사리, 물, 모자 등 여러가지 파는 곳인데 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이곳은 층층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사고 싶었던 쥬스피 이랑 안경, 바지를 샀다. 원래는 남산타워도 가려고 했었지만 시간 관계로 바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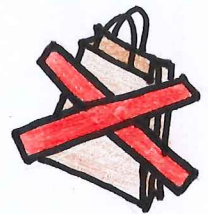


공포의



에어바운스

지난 여름방학 동안 매일 겁장 소파 운동장에
있는 물이 자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아닛!!!
에어바운스가 있는 물놀이장. 물 수심이 낮아서
재미가 없던 나는 경기도 하동 에어바운스를
들판에 망아지 마냥 뛰고. 미끄럼틀 타고 그리곳! 코스를
7~8바퀴를 돌고서야 씻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저녁에 고기를 먹고 집에 옷갈아 입고 쉬려다
물을 뜨거워간다!! 머리 이상해, 다리에 힘이 안들어간다..
일어나면 툭툭, 다시 일어나도 툭툭. 그런 나를
보며 웃기 바쁜 가족들 ㅎㅎ 엄마는 나에게 "망아지 처럼
하얏하얏, 땀때 알아봤어?"라고 하면서 나는 그날을
공포의 에어바운스 시간 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왕좌왕 팝업 도전기!

임가욱

올해 8월 1일, 내가 덕질 하는 아이돌 투코로바이 두게터가 드디어! 캐릭터(공식)를 만들어 발표했다. 멤버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 인가라, 왠지 모르게 더 이해 보였다. 그러던 중! 팬 커뮤니티 공지에서, 캐릭터 팝업쇼어를 한다는 것이었다!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 여길 가보면 어떻게냐고 물었다. 엄마께서 허락해 주셔서,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더니 엄청 부럽다고 말했다.

드디어 가는날! 오전 시간보다 40분? 정도 일찍 가 웨이팅을 시작했다. 그런데! 번호가... 1100번대! 었다. 엄마와 함께 일단 밥을 먹었다. 그냥 놓고 있으면 죽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놀았다. 3시쯤 되어 피곤해졌다. 6시간이 지나 반절이 빠졌다. 이렇게 되면 $3시 + 6시간 = 9시$ 에 귀가하게 될텐데... 아이돌 팝업은 처음이라, 지금까지 해왔던 록키, 나이키, 음식점 웨이팅은 식은 죽 먹기였단걸 깨달았다. 방법을 잘 몰라 유투버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재료가 남았는지 보러 갔다. 근데 이게 원100, 메인 키링이 한 멤버 빼고 전 ~ 부 품절되어버린 것이다...!! 난 너무 지치기도 했고, 다기도 500명 대나 남았고, 살 것도 없을 것 같아 집에 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태블릿을 보는데, "미링!—" 엄마의 핸드폰에서 웨이팅 완료음이 울렸다 (8시)

제목에 '우왕좌왕'인 이유는, 엄마께서 오는 길에 나에게 "우왕좌왕 급하게 놀고 왔네, 이런 것도 경험이지" 라고 말해주셨기 때문이다. 엄마의 말처럼 이런 경험은 차곡 차곡 쌓여 나도 언젠간 성공 하면 좋겠다!



엄마랑 데이트

글: 엄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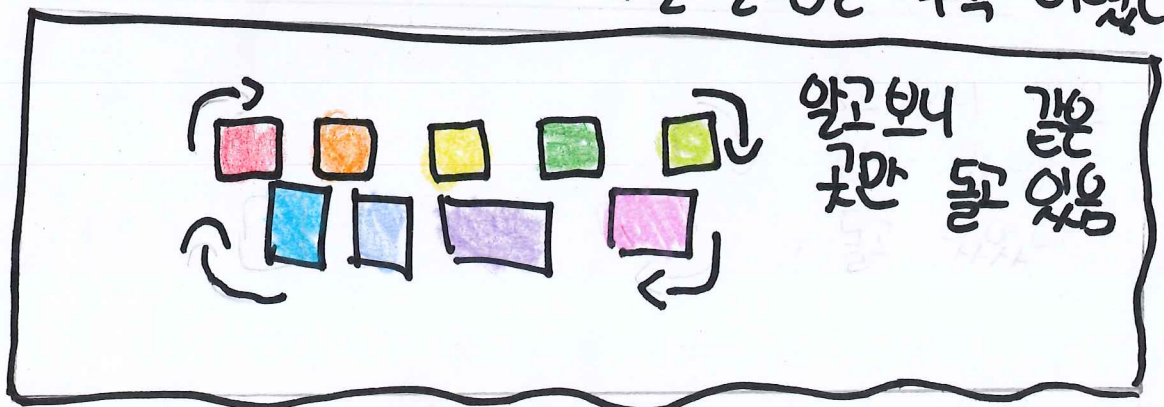
우당탕! 시작부터 우당탕과 함께 등장했다. 버스를 놓칠 뻔 했기 때문이다. 겨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청라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또 우당탕! 지하철을 놓칠까 빨리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도착해 놀거리를 찾아다니던 중 '인생네컷'이 있어 바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공기를 느끼며 머리띠를 와르르 굴러 방에 들어갔다. 시간이 없어 또 우당탕! 해버렸다. 엄마랑 우당탕 데이트 - 끝 -



아찔했던 추석

전예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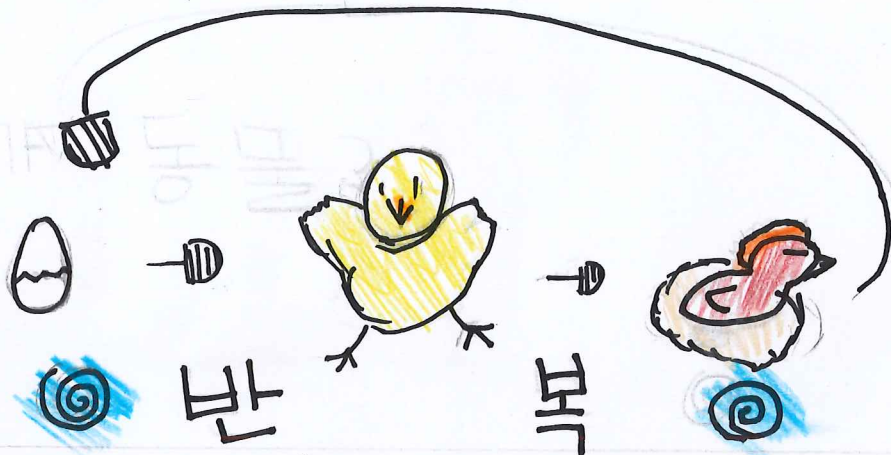
나는 추석 기간이 9월 15, 16, 17일 총 3일을 있었다. 15일에는 나, 친구, 3재 언니와 함께 놀았다. 새벽에 몰래 편의점도 가고 잠자는 어른들 앞에 가서 훔치며 웃음을 참으며 놀고 릴스도 찍으며 놀았다. 15일에 놀았던 내용은 다 새벽에 하며 놀것이다. 16일에는 오빠, 3재 언니, 나, 친구와 함께 사랑의 하룻밤을 보고 노래방도 가고 뷔치장도 가서 놀았다. 저녁이 되고 1재 언니, 2재 언니가 왔다. 1재 언니는 빨리 갔고 2재 언니와 3재 언니와 친구와 내가 친구집에 가서 새벽에 라면도 먹고 TV도 보고 놀다가 잠을 청했다. 추석 당일이다. 할머니댁에 갔다. 그런데 너무 심해서 3재 언니와 친구와 내가 옥리기리나가서 놀았다. 그런데 다 놀고 집가려고 보니 길을 잃었다. 길을 잃어서 어둡고 길도 가보지 않은 길이나왔다. 그래서 집은 잘 찾아 갔지만 30분 동안 길을 찾고 다녀서 너무 힘들고 기억에 제일 잘 남은 추석 이었다.



힘 들었던 복슬복슬 병아리 ☹️

부화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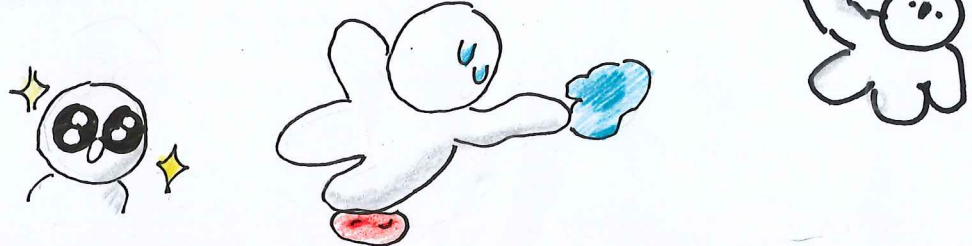
전예린



내가 병아리 같은 작은 동물을 기우자고 엄청 졸라서 할머니댁에서 유정란을 가져왔다. 알을 총 4알씩 가져왔는데 몇알이 나올까? 궁금했다. 네모난 스티로 폼 안에 달걀을 넣고 다듬어서 노란 전구도 넣고 총 21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학교 다녀오면 매일 확인하러 했다. @ 가끔은 개내새 어두운 곳에서 계란을 들고 불빛(핸드폰 후레쉬)을 비추면 안에 무언가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병아리다!! 태어났을 때는 냄새가 피 냄새가 났지만...그런데 안타깝게도 4알중 2알은 실패 1알은 나오다가 못나와서 실패 1알은 성공!! 근데 예정보다 일찍태어나서 몸이 변색했다. 너무나 기대했고 꼬리가 팀도있고 귀어새죽았...

구경이 자랑인 클라이밍

최지윤



난생 처음으로 클라이밍을 하러갔다 흠..... 클라이밍을
어떻게하지? 라는 걱정을 삼킬 이모와 함께 클라이밍을
하러 갔다 이모도 처음으로 클라이밍을 해서 클라이밍 잘
하시는 삼촌들도 같이 갔었다 클라이밍 장소의 첫인상은
휘어지게나 맨들맨들 해보이는 곳도 있어서 좀 무서웠었다..
제일 쉬운 단계인 하얀색부터 시작했다 이모가 먼저 했는데
못 할 줄 알았던 이모가 꽤 잘했다 하얀색이라서 그런가?
쇼기도 했다 그다음은 나의 차례였다 제일 쉬어서
그런가? 아주 깔끔하게 성공 그다음 숫자로 표시되어있는
곳 이었다 1~14 까지 있었는데 11에서 12가 어디있는지
몰라서 요저리 찾아보다가 안 보여서 실패 했었다 ㅎㅎ
잘하시는 삼촌을 보면서 삼촌은 윤승이의 형이하신듯
엄청 잘 하셨다 난 아무것도 못해서 구경을 했다
역시 클라이밍은 구경이구...! 옹 아뿔 난생 처음으로 한
클라이밍은 무척 재미 있었다!

베트남 여행 일대기 김건호

올해 7월달에 베트남 여행을 친척들과
같이 갔었다. 첫째 남매는 아직 친척들이
오지않아 우리 가족들끼리 나트랑 시내를 돌아
다녀다 놀았다. 놀았는데! 롯데마트와
떡볶이집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대부분 만화책 한국어도 // 우리는 떡볶이가
맛있단다! 이념에 써져있었다 웃기기
도 하고 신기했다.

다음 목적지는 빈펄이였다. 우리네의
생다코린이나 비슷하다. 리조트에서 집이
따로 따로 있었다. 우리는
드라이브 인이나 수영장, 바, 바다
앞이었다. 다른 즐길 거지도 많고 정말
좋았다.

마지막 목적지는 라오 나트랑이다.
저녁에 라오 리조트에서 수영하고 계속
놀았다. 그리고 라오 바닷가에는 나의
베트남 여행은 끝난다.



← 과일 오시게
먹을

친구들이랑 크게 웃었던 일

이름: 노하경

내가 친구들이랑 크게 웃었던 일은 친구들이랑 큐브트리에 끌려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세우고 큐브트리가 10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엘리베이터가 와서 타고 올라가려 했는데 편의점 CV가 어디 있는지 아주머니께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답습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올라 갔다 그래서 최종한에 웃겨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크게 웃었다.



저어새 탐구일지!

글: 변시현



나는 여름방학때 탐구과제로 조사일지를 쓰기로 했다. 여름방학 마지막 날쯤 내일생 초등학교에 개인 조사를 시작했다! 목표는 저어새의 생태조사였다. 저어새는 멸종위기종이라서 흔치 않지만 씨씨이드파크에서 저어새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적지로 탐장포항했다. 핸드폰, 물, 양원병을 챙겨서 전망대의 층에서 달려갔다.

도착했다! 번눈으로만 봐도 희눈 뽀얀 깃털을 가진 저어새가 보였다. 개체수는 꽤 많았다.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을 했다. 잘 안보였다. 그래도 전망대 위는 망원경이 좋은 거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찰을 다시 시작했다. 아주 잘 보인다. 울음소리로 휘휘 켜더니, 물고기를 잡았다! 몇몇 저어새는 땅 위를 걸어서 다니는 것을 saw했다. 수컷 같은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걸로 깃털 흰색이 있었다. 사진을 찍고 창으로 복귀했다. 나는 사진을 정리하고 탐구일지를 마무리했다. 저어새는 여름철새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으면 볼수 없을 수도 있다. 다행히 저어새를 본아서 기분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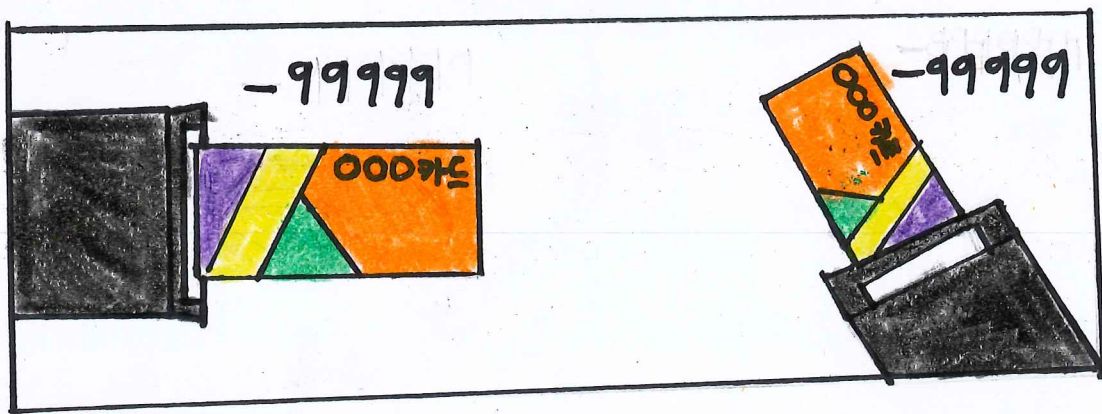


2024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
씨씨이드 파크 앞 바다.

점점 멀리는 할머니 카드

배시우

나는 8월 1일날 할머니 댁을 갔다. 그때 여름방학 이였고 셋이서 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그 뒤로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소에게 밥을 주시려 가셨다. 그때 저녁이여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장을 보려고 가서 내동생이 과일과 과자를 사고 저것도 사니 할머니의 카드가 돈이 딸탈 났었다.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고 또 타고 계속 타니 갈 시간이 되어서 갔다.



트라우마 극복! 베트남

글: 그림: 세현

나에게는 아주 큰 트라우마가 존재한다.
그건 바로 시간을 거슬러 8살 때로 돌아가면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있다. 그 때는 해외여행으로
베트남을 갔을 때였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 배고파 다 화장을 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엄마가 5분만 잠깐 기다려 주라길래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는데 5분이 지나도 안 오길래
계속 기다렸다. 근데 20분이 지나도 안 오자,

나는 무언가 잘못 됨을 깨달았고 난 패닉 상태
가 와서 혼란에 빠졌다. (이때가 참고로 베트남공항)
해외니까 갑자기 뭔가지 생각이 머리에 맴돌
았다. (나 국제고아 되는 거 아니야?, 나 목숨 위험!!

누군가 날 위로할 거야!) 하는 순간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엄마, 아버지를 찾아주었다.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2024 여행은.. 수영하국 먹고 자고, 농고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재밌었다.



장난치는 아이

윤시환

주말에 친구들과 키쥬파크에 놀러 갔다.
나는 돈을 내고 키쥬파크에 들어 갔다.

방방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 갔다.

거기에 어떤 아이가 있었 다.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논 았 다.

그때 그 아이가 같이 놀자고
말 했다. 우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다. 어쩔수 없이 같이 놀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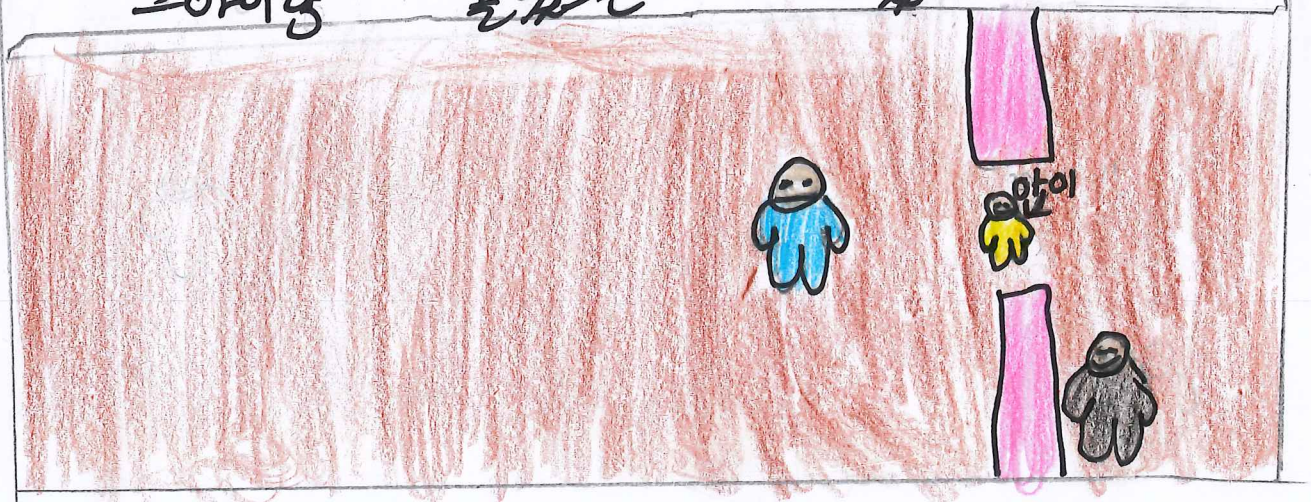
했다. 하지만 그 아이랑 놀면

안 되 었 다. 그 아이랑 스키바꼭질은 하는데

적속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우리는 조금

이따가 키쥬파크에서 나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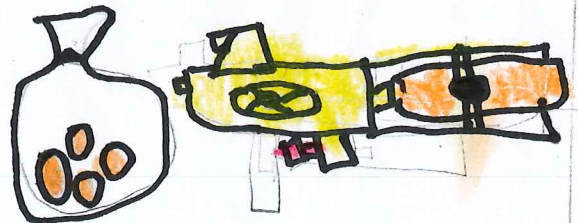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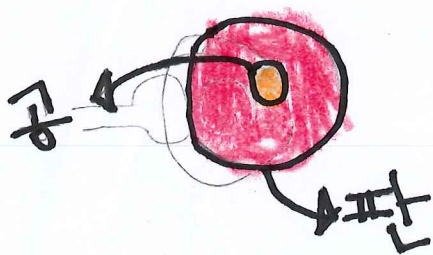
그 아이랑 놀았으면 안 되 었 다.



여름방학 아가리가 교회 여름 성경학

권이현, 그림: 옥

나는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재미있게 했다.
거기서 '바' '벼' '코' 도 먹고 맛있는 음식
도 많이 먹었다. 또 게임과 물총
놀이도 했었다. 우리교회는 성경
학교를 재미있는 걸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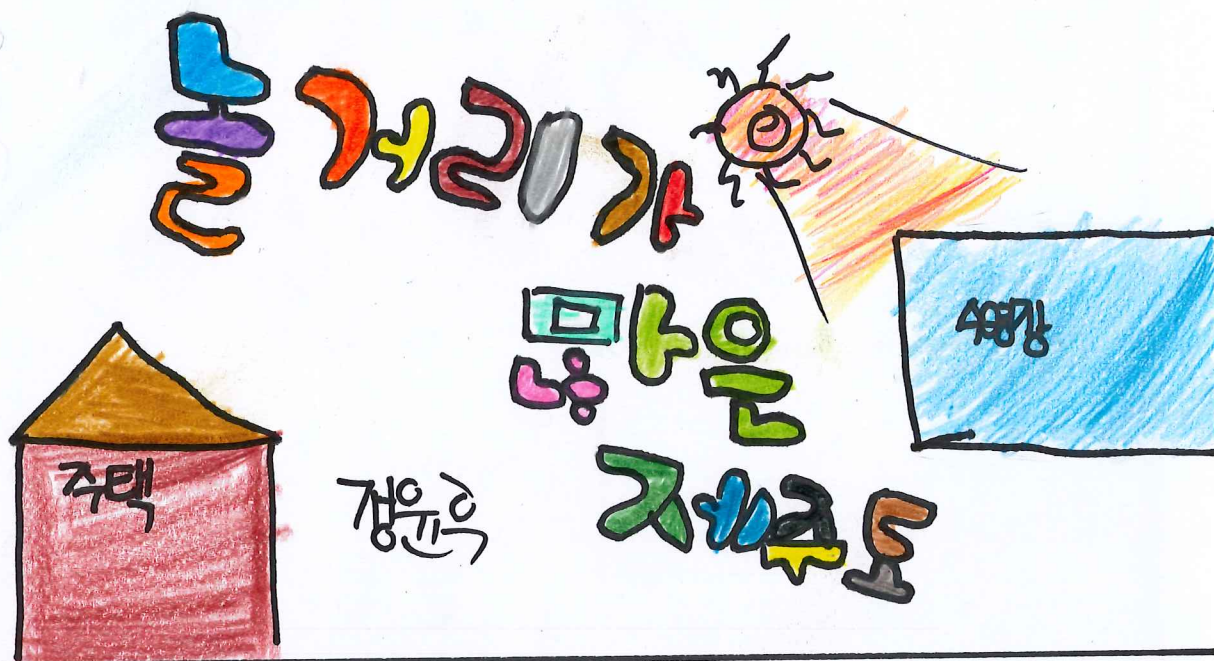
으악!

메가스톱

글&그림: 이지환

오늘은 사촌들과 용인에 놀러가서
애버랜드에 있는 캐리비안베이로 갔다. 우리는
먼저 옷을 갈아입고 구명조끼를 사서 입었다. 
우리 사촌에는 아이들이 7명있는데 여자만 남자로
나뉘어서 남자 5명끼리, 여자 2명끼리 놀았다. 우리
남자 5명은 먼저 파도풀에 갔다. 우리는 재미를
위해 가장 파도가 높은 곳까지 가서 파도타기를 
하고 가장 유명한 워터슬라이드 '메가스톱'을 타러
갔다. 줄 기다리면서 쿨러에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우리는 벌써 3시는 30분동안
기다리고있었다. 드디어 우리차례가 왔다. 우리는 무게가
가벼워서 잘 안나갈 줄 알았는데 좀 빠르고 무서웠다.
그리고 많은 놀이기구를 타다가 음악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여자 아이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그곳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제 곧 시간이 되어서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정말 재밌었고 또 가고싶다





나는 5학년 때 제주도를 갔다.

제주도에는 굴 탕후리가 맛있고, 한라산도
있다. 그중에서 흑돼지 고기가

맛있고, 제주도에는 먹을 거리가 많다.

나는 제주도 주택 펜션을 갔는데
바퀴벌레 같은 벌레가 기마리
넘게 있었고, 아버지는 그 벌레를

다 잡았다. 우리는 바닷가에 갔는데

너무더워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갔다.

제주도는 즐거이가 많고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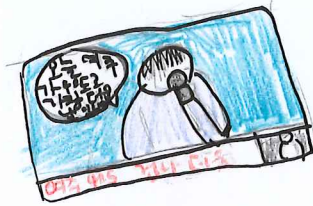
지옥의 익스트림 스포츠

조운우

2024 8월 7일에 엄마가 물놀이장을
가자 했는데 아버지가 가파르게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가자 했다 그래서 다음날에
가파르게 있는 북한강까지 가야 되는데
3시간이 걸려 홍이랑 게임 하면서 북한강까지
갔다. 거기에 들어가니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왜 익스트림 스포츠인지
몰랐는데 큰 선착장 같은 것이 있어 거기
갔더니 강에 있는 놀이터 같은데 풍년으로 되어
있어 안전하고 물에 빠지는 곳도 있는데
일부러 빠지려고 한 거였다. 거기에서 뚱고나서
바나나 보트를 타려 했는데 일반 바나나 보트랑
달랐다. 뭔가 나는 느낌이 나고 너무 바랄랐다.
그래도 여기까지도 전철로 계속 뚱고나서,
공룡, 타노스 같은 것들을 타더니 힘들어서
침에 오는 길에 좋아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머리랑 몸이 다 아파서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재밌어서 다행인 것 같다.



가기 싫게 만드는 여주의 폭염



기온 30도

진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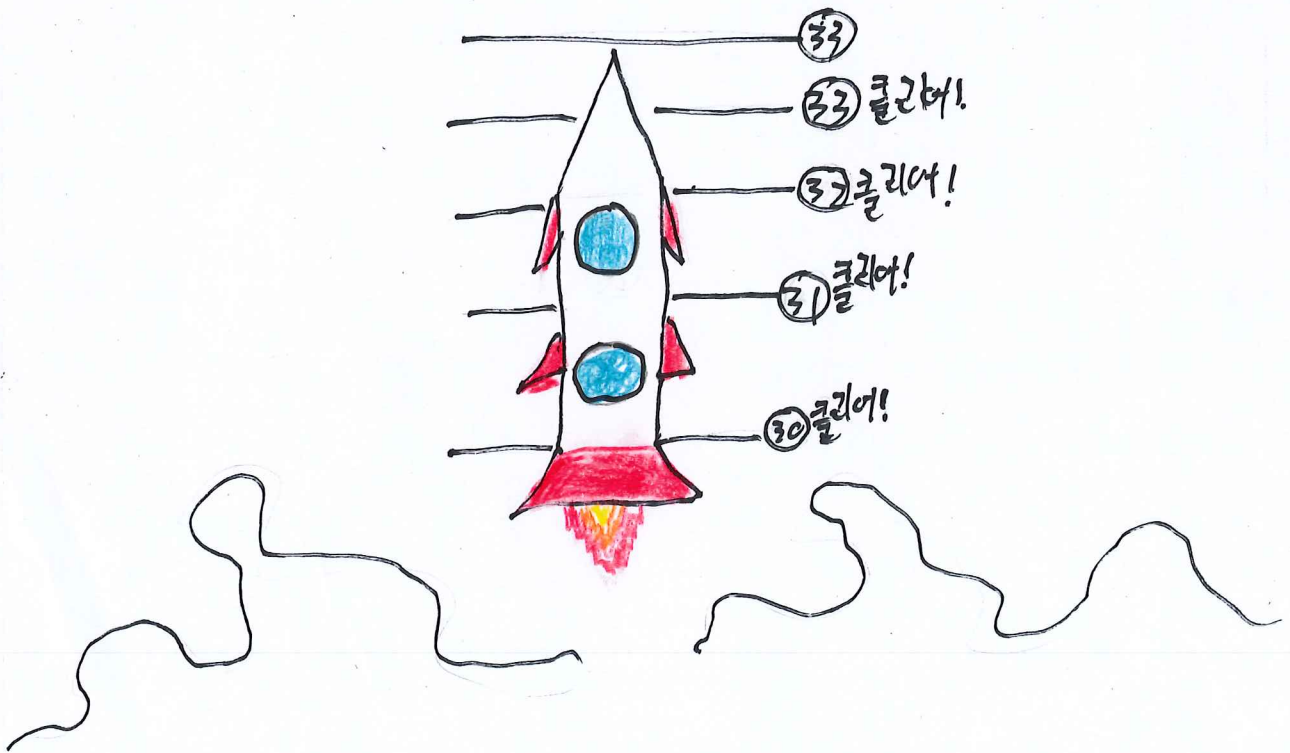
난 어렸을때 갔었던 여주에 있는 곤충박물관을 갔

다. 난 지금 12살이지만 어렸을때 갔을땐 7년전쯤
이라 기억은 나지 않는다. 경기도여주는 강원도쪽에 있어
오래전고 차도 막혀 왕복 6시간이 걸렸다. 곤충박물관
에 도착했다. 너무 더웠다. 도착하고 나서도 너무나 더웠다.

난 차에선 나오자마자 땀이 나왔다. 땀은 흐르고 흠뻑 젖어서

땋! 땀이 젖었다. 그때 난 직감했다. '아 우리지역은 40도의 폭염이
구나. 그때 우리지역은 30도였거든. 곤충박물관에서 엄청나게 폭염이
집에 오 뉴스들 봤다. 근데 뉴스에서 '오늘 여주가 40도 가량
더운날이었습다' 라고 할때 나는 엄청나게 놀랐다

나의 사촌은 우주 비행사
 주말에 나는 사촌과 같이 게임을
 했다. 근데 나의 사촌이 나보다 게임
 웨이브가 더 높았다. 그래서 사촌이
 조종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 같은
 속도로 웨이브를 클리어하니 나의 사촌과
 나의 웨이브가 같아 졌다. 1년이 걸릴걸
 1시간 만에 클리어해 기분이 너무 좋았다.



벌레 지옥 캠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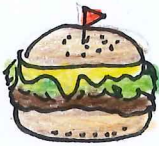
하루

2024년 추석 이 바로 끝난뒤 바로 캠핑을
했다 캠핑장에 갔는데 너무 더웠다그래도
텐트 안에 에어컨이 있어서 편찮았다
바로 수영복으로 갈아 입고 수영장으로들어
갔다근데 벌레가너무 많았다모기가날라다
녔다노릇이 지나고 있을 때 밥을먹었다근데 짜리
가웠다머리저저저 밥을먹고또 수영을했다
그때 엄청큰 거미가나왔다아빠가거미를
잡고자는데 텐트안에모기가3마리나있어잠은
잘못 잤다다음날 일어나니3번이나물렸다
그리고 자기전에 캠프파이어도했었다.

또 가고싶고

< 그리운 미국 여행 >

+고생길 또 ON



글: 그리 박지현

나는 몇일전에 **미국**을 다녀왔다. 3~4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은 머리 앞쪽일찍 세웠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바로 하루 전날, 잠은 잘 잤는지, 더 챙길건 없는지 확인해봤다. 챙길건 더 챙기고 씻었는데 잠에 들려고 했으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았다. 30분쯤이나 경과한 후, 잠에 들어 새벽 5시 30분쯤 일어나 불, 가스, 전기(....)을 다 끄고, 공항으로 갔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을 가는 비행기를 탔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설렘이었다. 비행기를 타며 밤을 꼬고 예쁜 풍경 하늘을 보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14시간을 갔다. 다리가 많이 붓고 너무 오래 앉아있어 다리가 저렸지만 비행기를 저번에도 3~4번 타봐서 힘들기보단 설렘이 더 컸다. 도착한 후 미국에서 11일을 여행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건 UN, 자유의 여신상,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과 모마 현대미술관, 라이온킹 뮤지컬, NYU 이었다. UN과 NYU는 정말 웅장하고 나도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 UN총장님이 회의를 하는 모습을 특별한 날이라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 게다가 NYU에서는 한국어도 영어 좀 이를 번역해주셔서 특별히 우리만 주셨다. 자유의 여신상은 크고 가까이 갈수록 감명받았다. 메트로 폴리탄, 모마 현대 미술관은 내가 좋아하는 모피와 피카소, 고갱의 그림이 셀 수 없이 많아 감동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라이온킹 뮤지컬은 제일 웅장하고, 동물탈이 진짜 동물같았으며 연기력이 모두가 대단했다. 미국에서 길을 살짝 잃고, 고생길도 많았으나 즐겁고 가치있는 일이 더 많은 '다시 가고픈 나의 미국 여행'이 되었다.

N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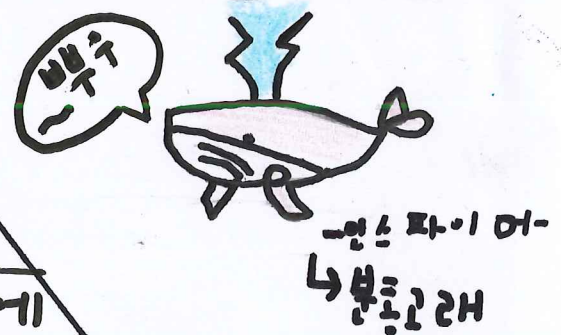


어마와 이 인 스파이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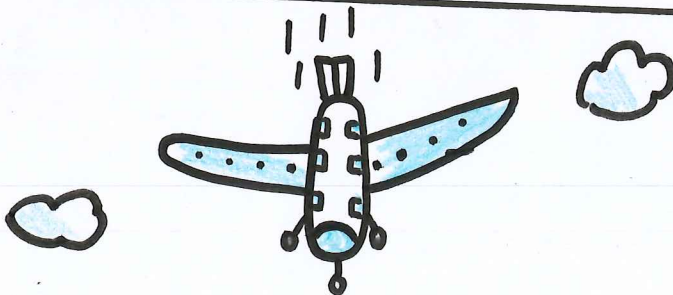


오늘은 엄마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에 갈 것이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를 타고 2층으로 가서 국경
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서 연애인을 보았다. 남자 그룹이다

이름은 모르지만 추억에는 남아
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갔다. 공에 도착하고 인스퍼거에
갔다! 갈때 고리는 놓쳤지만 그래도 재미있어
서



다! 나중에도 또 가고 싶다! | 공든! 공둥기공/공



-장우진-